

조합원 여러분!

제12·13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성관입니다.

저는 2월 23일 제40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6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평범한 조합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6년을 되돌아보니, 어느 한 순간 소중하지 않은 기억이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인지, 후회와 아쉬움 보다는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2016년 조합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이사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가슴 벅찬 순간이 떠오릅니다.

취임하면서 저는 조합원 여러분께 변화와 혁신의 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 130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조합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했고,

조합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 연임의 기회를 주셨을 때 조합원 여러분의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제가 느꼈던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조합은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취임 당시 1조5,536억원이던 자산 규모는 2021년 결산 결과 2조1,646억원으로 무려 39.3% 증가했고,

좌당지분액도 32만562원에서 35만833원으로 9.4%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은 저비용·고효율 조직문화가 튼튼히 뿌리내렸다고 확신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우 고된 여정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이사장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비루했지만 저는 절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준 전기공사업에 대한 남다른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의 물결은

전기공사업계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기가 중심이 되는 전기화(電氣化) 시대가 가속화 되고 분명히 전기공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힘찬 항해를 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 6년은 개인 김성관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세계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조합을 응원하겠습니다. 또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오래도록 염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